

‘마한역사의 시작과 끝’ 광주, 역사적 가치 커

‘마한문화권’ 광주·전남 상생 아이콘
광주·전남·전북·충청에 54개 소국
‘유기적 연계’ 유네스코 등재 과제
국립마한역사센터 유치가 출발점

광주지역이 마한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평가 속에 광주시가 마한역사 연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추진해 마한을 광주·전남 공동번영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세계문화유산 등재
광주시는 지난 22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전달했다.

마한역사문화유산의 연구·홍보를 위한 기관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현재 문화재청이 국비 2억원을 투입해 8월까지 건립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건립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를 비롯해 전남, 전북, 충남 등의 마한문화권 지자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유치 희망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통해 광주, 전남·전북, 충청까지 산재한 마한문화를 연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마한 역사에 있어 광주가 의미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 지원 등을 뒷받침 해 줄 ‘마한역사문화권’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마한 역사 유적과 관련, 어떠한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어 기간 마한유적을 체계화 시키는데 걸림돌이 돼 왔으나, 지난해 6월 마한역사문화권에 광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보다 활발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유치는 마한 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마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연속유산이라는 카테고리 신청해야 한다. 2개 이상 광역지자체가 함께 하는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마한이라는 역사공동체이자 각자 독특한 문화를 지닌 특징이 있다.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서 상생 협력의 길을 열고 마한이 꽃피었던 공

동 번영의 시대로 다시 나아가자”며 비전을 제시했다.

●‘시작과 끝’ 광주마한역사 가치 커
광주는 마한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 서진 역사가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에 따르면 마한이 2세기 말에 성립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고고학계에서는 더 오래전부터 마한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1963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옹관묘군이 확인됐고 1992년 국립광주박물관의 조사에서는 마한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돼 마한 성립과 형성, 발전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마한 유적지다. 신창동 유적은 마한이 초기 철기시대가 아닌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장고분’은 당초 4세기 마한이 백제에 의해 정복됐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광주에 4기가 남아있는 장고분은 일본의 ‘전방후원분’의 모양과 흡사해 한때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인사들이 주장해 온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학계에서 ‘근거 없음’으로 발표하면서 광주 장고분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됐다.

학자들은 독특한 장고분의 형상을 백제 남하정책과 일본 야마토 정권의 집권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백제가 ‘충청-전북-전남’ 순으로 마한을 정복했고, 난민이 된 마한인은 백제에 복속되거나 납북 마한으로 밀려갔다. 나머지는 제3국인 일본으로 망명했다. 일본으로 망명한 마한인은 큐슈 일대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본인 야마토 정권과의 전쟁에 패해 6세기 무렵 유일한 마한지역이었던 광주로 이주했다는 설이다.

광주에 거주한 ‘왜계 마한인’은 백제의 남하정책을 적극 방어하는 최후의 마한인이었다. 광주에 거주한 왜계 마한인은 선조때부터 일본에서 답습한 무덤형태인 장고분을 유지하며 부장품은 마한 고구 무늬들로 채우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마한의 시작은 최소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시작돼 6세기까지 유지됐었다”며 “광주는 마한 역사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 광주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유치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돼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지 기자

광주 마한 역사문화	
형성기	기원전 후(BC 300년)~6세기 초반
문화	농업, 제철, 토기, 문자유통 등 대도시 형태
발굴유적	82건 (국가사적 1건, 광주시 지정 8건)
대표 유물	마한 농기, 칠기, 악기, 무구, 수레바퀴, 법씨총 등
*문화재청 발굴기준	
광주 마한 대표유적지-신창동	
위치	광주 광산구 신창동 512-1번지 일원
면적	26만715㎡
발굴조사	26회·발굴조사율 30% (총 면적대비)
광주시, 마한역사문화권 정책 추진	
국회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 (마한 문화권 '광주' 포함)	
2020년 광주·전남 상생과제 '마한문화권 개발' 선정	
2021년 광주·전남 상생과제 세계문화유산등재 공동노력	
2022년 6월 광주 신창동 마한유적 체험학습관 건립	
마한 관련 연구용역(3건)·학술대회 개최	
2023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추진	

마한 역사는 광주 역사의 시작이다

최영주 선문대 사학과 교수

2022년 1월18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의 마한역사문화권 정의 부분의 개정예에 따라, 비로소 광주시는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마한역사문화권에 있어 광주의 역사성과 위상을 조명하는 다양한 학술회의를 추진하고, 기존 시립민속박물관을 역사민속박물관으로 재개관하는 등 마한사 정책개발에 힘써왔다. 또한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제375호) 일원에 ‘마한유적체험관’을 개관하는 등 마한사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렇듯 광주시가 지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한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마한은 대체로 경기, 충청, 전라지역에 분포했고,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6세기 전엽까지 존재했다. 전라지역 가운데 광주, 전남, 전북(고창)지역은 마한이 소멸되기 직전까지 찬란한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다.

광주는 마한 소국 중 구사오단국으로, 영산강변에 대규모



취락유적이 분포한 모습은 고대 도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나주·영암 등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신창동 유적은 마한의 시작을 알리는 농경과 교역의 중심지로서 국가사적에 지정될 만큼 이미 역사적 가치가 입증됐다. 영산강변의 농경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복합유적은 마한 소국의 중심지에 대한 실제적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가 통일신라시대와 후삼국시대에 중심 도시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광주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연구하는 시발점은 마한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 계획 관련 용역을 수립하면서, 과연 어느 곳이 건립대상지가 될지 주목된다. 언론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전남도의 나주시, 영암군, 해남군이 적극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전남에는 이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북암리 고분전시관 등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 가 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남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